

석화업계, 공급과잉·원가부담 허덕 'NB라텍스 가격반등' 실적변수 기대

중동사태 지속... 업황개선 난항
금호석화, NB라텍스 점유율 1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가능성

석유화학업계가 하반기 고가 원재료 투입과 중국발 공급과잉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CC(납사분해설비) 중심 범용 화학사들은 중동 전쟁 이후 가격이 오른 나프타를 원재료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제품 가격 상승 국면에서도 수익성 개선 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금호석유화학은 니트릴 장갑 원료인 NB라텍스 공급 개선이 합성고무 부문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2분기까지 실적을 일부 떠받쳤던 긍정적 래깅 효과가 하반기에는 원가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톤당 800~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전쟁 이전 확보한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가 일부 반영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중동 전쟁 이후 높은 가격에 매입한 원재료 비중이 늘면서 범용 제품 중심 업체들의 스프레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공급과잉까지 겹치면서 NCC 중심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 폭도 제한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1분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피하지 못했다. 금호석유화학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800억원, 영업이익은 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0.7% 감소했다. 3월 들어 고무 제품 핵심 원료인 부타디엔(BD) 가격이 급등하면서 합성고무 부문 수익성이 제한됐다.

다만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NCC 중심 범용 화학사들과 차이가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NCC를 보유하지 않고 합성고무·라텍스 등 다운스트림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과 달리 중국발 에틸렌 공급과잉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BD 등 합성고무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전방 장갑·타이어 수요에 따른 제품 스프레드 변화가 실적에 직접 반영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NB라텍스 가격 반등은 하반기 실적 방어에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5월 국내 NB라텍스 수출 단가는 톤당 1705달러로 연초 대비 176% 상승했다. 미국의 중국산 의류용 니트릴 장갑 관세 인상과 글로벌 NB라텍스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의류·산업용 니트릴 장갑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NB라텍스 시장이 203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5~7%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NB라텍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고가 원재료 투입 부담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NCC 중심 범용 화학사의 수익성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가격 반등과 글로벌 장갑업체 원료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 방어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슈필라움 글로우캐빈'

/LG전자

LG전자, 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선포

'슈필라움 글로우캐빈' 전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이동형 공간 솔루션을 앞세워 새로운 고객 경험 확대에 나선다. 차량 내부를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구현하며 AI홈 생태계를 차량까지 확장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오는 8월 말까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슈필라움'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독일어로 '놀이 공간'을 뜻하는 슈필라움은 기아 PV5 차량에 LG전자의 맞춤형 가전과 가구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고객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전과 가구 종류를 자유롭게 조합해 온전한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은 캠핑, 피크닉 등 야외 활동에 특화된 '슈필라움 글로우캐빈'이다. 차량 내부에 냉

장고, 광파오븐, 와인셀러 등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생성형 AI가 적용된 허브 'LG 씬큐 온'을 통해 음성만으로도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열린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기아와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슈필라움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양사는 현재 솔루션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지난 70년간 가전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해 온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에 AI 기술을 접목한 공간 솔루션을 차량을 비롯해 고객이 머무는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슈필라움'을 비롯해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LG전자 오준환 HS CX실장은 "고객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AI 가전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슈필라움'만의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효성중, 日 ESS 사업 순항... 640억 성과

대규모 ESS 프로젝트 연속 수주
"日 시장 기반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일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안정화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일본 진출 첫해부터 특고압·고압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잇달아 따내며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 대형 ESS 수주에 이어 계통 연계 기준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해외 ESS 사업의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일본 에너지 개발업체와 약 110억원 규모의 고압 연계 ESS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이타, 구마모토, 야마구치, 오카야마, 미에 등 일본 5개 지역에 총 10MW·40MWh 규모 고압 ESS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효성중공업은 전체 시스템 설계와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완공 이후 최장 20년간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수주로 효성중공업의 일본 내 ESS 사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홋카이도 시라누카 지역 48.5MW·228MWh 규모 특고압 ESS EPC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고압 ESS 계약까지 추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 ESS 누적 수주액은 약 64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 중 최대 규모다.

일본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성장 여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출력 변동성을 보완할 ESS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일본 ESS 시장이 2025년 약 134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효성중공업은 2009년 ESS 사업에 진출한 이후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단일 기준 국내 최대 용량인 336MW 규모 ESS를 한전 북부변전소에 구축하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ESS 레퍼런스도 넓혀왔다. 효성중공업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다양한 ESS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올해 3월에는 호주 퀸즐랜드 탕캄 지역에서 100MW·200MWh 규모 ESS EPC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기자재 안전성과 규격 기준이 엄격한 일본 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레퍼런스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ESS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중, LNG선 등 1조 규모 패키지 수주

고부가 선종 중심 수주 기반 확장

삼성중공업이 동일 선사로부터 3개 선종, 5척을 패키지로 수주하며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7일 비루다 지역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1척, 대형가스운반선(VLGC) 2척, 원유운반선 2척 등 총 5척을 약 1조1800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27척, 54억달러(약 8조1254억원)로 늘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3척, 에탄운반선 2척, 가스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원유운반선 6척 등이다. LNG운반선 중심의 고부가 선종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스선과 탱커 등으로 수주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가 서로 다른 복수의 선종을 한 조건사에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정 선종에 국한되지 않는 삼성중공업의 종합 건조 역량과 고객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 선종은 수익성을, 표준화 선종은 생산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ale@

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기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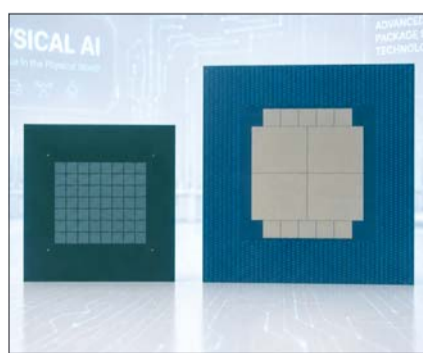
ECTC 참가... FC-BGA 기술 소개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첨단 패키지 기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면적 FC-BGA와 초박형 통신용 기관 등 차세대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LG이노텍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2026 ECTC(전자부품기술학회)'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기관 기술을 공개한다.

LG이노텍은 행사 기간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대상으로 가로·세로 85mm 크기의 대면적 FC-BGA 기관과 이보다 면적이 약 40% 큰 초대면적 FC-BGA 기관 샘플을 선보인다.

대면적 FC-BGA에는 칩 임베딩 기술도 적용됐다. 칩 임베딩은 칩을 기관 위에 실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기관 내부에 칩을 매립하는 기술이다. 신호 이동 거리를 줄여 전원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저항을 약 25% 낮출 수 있다. 이를 통



LG이노텍의 대면적·초대면적 FC-BGA 기관 샘플 제품 2종. /LG이노텍

해 서버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LG이노텍은 5G 통신용 RF-SiP 기관도 함께 공개한다.

/원관희 기자

한국엔컴퍼니그룹, AX 실행전략 공유

'엔터프라이즈 AI 서울' 참여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엔터프라이즈 AI(인공지능) 서울 2026'에서 그룹의 AX(AI 전환) 비전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엔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디지털전략실의 김성진 전무는 키노트와 세션 연사로 참여해 'AI가 기업의 운영을 바꾸는 방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무는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의 확산이 단순한 개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기업의 업무수행 방식과 운영 구조 전

반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의 현실적 접근법, 전통적 산업에 미칠 영향, 실제 적용 사례, 기업 운영 변화와 남겨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AX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김 전무는 "AI 기술은 이제 일부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를 실질적 업무 성과와 연결하고, 전자 AX 실행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